



김씨는 “얼굴이 드러나면 작품 물입도가 떨어진다”며 공개를 꺼려했다. 대신 독자들을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을 보내왔다. 루드비코의 만화영화에 등장하는 김석현씨 캐릭터.

“삶과 추억 모든게 만화 주제입니다”

광주서 창작활동…포털 다음 인기 웹툰작가 김석현 씨

“이거 정말, 아주 괜찮은 웹툰입니다. 강추! - id 꽃소녀”

“루드비코님 웹툰은 그냥 웃고 넘기는 그런것보다 소장하고 싶어지는 작품같아요 - id boreas”

광주에서 웹툰(인터넷에 출판되는 만화)을 그리는 한 남자 있다. 그는 아침 10시부터 평균 12시간 동안 자신의 방에서 매번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있다.

컴퓨터와 태블릿을 갖고 ‘놀며, 일하며’ 보내는 하루가 매일 즐겁다는 이 사람, 최근 연재작인 ‘인터뷰’와 ‘루드비코의 만화영화’ 단행본을 출간한 김석현씨다.

김씨는 어릴 때 ‘비디오 키드’였다. 비디오 가게를 운영한 아버지 덕분이었다. 영화를 자주 접했고, 다양한 인간의 인생이 담긴 영화를 통해 그의 꿈과 동경이 자랐다. 그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들으며 안목을 키웠다.

“2005년 ‘웹툰’을 처음 접했습니다. 강도하씨의 ‘위대한 캣츠비’라는 작품이었죠. 웹툰은 컴퓨터 화면에서 보여지는 거라 기존 출판만화와 달리요. 이를 과감히 부수 구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주영성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한 2010년, 다음(www.daum.net)의 ‘나도만화가’를 통해 데뷔한 김씨는 ‘크리켓 마스크’를 시작으로 ‘인터뷰’, ‘난만 연재를 마친 ‘루드비코의 만화영화’까지 만드는 웹툰마다 지지를 받으며 단숨에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루드비코의 만화영화’의 경우, 평점 9.7, 3개월 동안 400여개의 추천 댓글이 올라오는 등 놀라운 반응을 얻기도 했다.

이 웹툰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스스로 틀을 깬 작가의 노력 덕분이다. 전작에서 스크립터 장르를 다뤘던 그는 영화와 연관된 자신의 주역과 삶을 그림에 녹여내며 기존의 ‘루드비코’를 뛰어넘는 작품을 선보였다고 평가받는다. 그림체도 바꿨고,

주인공도 자신을 의인화해 새롭게 창조한 토끼를 내세웠다.

김씨는 “만화가로서 이미지 고착을 피하기 위해 시도한 작품”이라며 “직접 경험한 일이나 대화, TV 등 모든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평소에도 여러 곳을 돌아다니고 영화, 책, 만화, 인문학 서적 등을 거치지 않고 읽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작가’라는 직업의 한계와 비슷도艇인 광주에서 느끼는 소외감 등은 만화가의 길을 걷는 그에게 걸림돌로 작용한다. 지방에서 웹툰을 그리던 대부분의 작가들은 서울을 비롯한 경기도로 ‘상경’했지만 그는 광주에 남아있다. “만화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작가를 하려면 ‘다독(많이 읽고), 다작(많이 쓰고), 다상상(많이 생각하라)’이 철칙이죠. 저는 다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많이 접해야 안목이 생기고, 이를 통해 얻은 삶의 인상이 단편적인 생각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표현하는게 만화의 재미고, 이 일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 같아요.”

김상균 KT전남고객본부장 취임

지난 19일 김상균(59) KT전남고객본부장이 취임했다.

김 본부장은 강진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및 동대학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KT순천지사 지사장, KT광주·전남마케팅단 단장, KT전남고객본부 고객가치담당 등 요직을 역임했다. 김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멀티미디어 시대에 다양해진 제품과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해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강성남 위원장·이경호 부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기 대의원회를 열고 제7대 위원장에 강성남(52) 후보, 강성남 부위원장에 이경호(52)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단독 출마한 강·이 후보 조는 93.6%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강 위원장은 1988년 서울신문사 사진부에 입사해 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 위원장,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 수석부위원장은 1995년 KBS에 입사해 베이징특파원을 거쳐 언론노조 KBS본부 특임국장을 맡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이경호(43)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단독 출마한 강·이 후보 조는 93.6%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기 대의원회를 열고 제7대 위원장에 강성남(52) 후보, 강성남 부위원장에 이경호(52) 후보를 각각 선출했다. 단독 출마한 강·이

후보 조는 93.6%의 찬성으로 당선됐다.

강 위원장은 1988년 서울신문사 사진부에 입사해 언론노조 서울신문지부 위원장,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 수석부위원장은 1995년 KBS에 입사해 베이징특파원을 거쳐 언론노조 KBS본부 특임국장을 맡았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오수열 조선대 정책대학원장 주제발표

오수열 조선대 정책대학원장은 22일 오후 1시30분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월파 서민호 재조명 학술 강연회’에서 ‘조선대학교 설립과정을 통해 본 서민호의 교육 사상’을 가지고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오 교수는 이를 통해 광복 직후 민중에 의해 설립돼 오늘날 한국 놀지의 사립대학으로 성장한 조선대학의 설립과정에, 당시 광주시장·전남 지사로 봉직한 월파 서민호가 친한 공작과 그의 교육권을 조명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수열 조선대 정책대학원장 주제발표

오수열 조선대 정책대학원장은 22일 오후 1시30분 고흥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1회 월파 서민호 재조명 학술 강연회’에서 ‘조선대학교 설립과정을 통해 본 서민호의 교육 사상’을 가지고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오 교수는 이를 통해 광복 직후 민중에 의해 설립돼 오늘날 한국 놀지의 사립대학으로 성장한 조선대학의 설립과정에, 당시 광주시장·전남 지사로 봉직한 월파 서민호가 친한 공작과 그의 교육권을 조명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수열 조선대 정책대학원장 주제발표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창립 108주년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찬교 국제로타리 3710지구 총재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신양아파트 호텔 1층 그랜드 볼룸에서 국제로타리 창립 108주년 기념식을 갖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 서부 지역 82개 클럽 회원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div